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13일(목) 총 6매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 유행병관리팀장 이성희 ☎440-7841 • 담당자 길소현 ☎440-784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결핵예방·관리

- 지난해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 35.3명, 신규 결핵환자 전년 대비 11.5% 감소 -
- 고위험군 조기 검진 강화로 결핵 발생률 23년 30명 → 30년 10명 이하 목표 -

인천시가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에 중점을 두는 등 결핵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구 고령화와 결핵 고위험군 관리 사각지대 등을 반영해 ‘2023년 인천시 결핵관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년 결핵 주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39.8명으로 제2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 목표(40명 이하)를 달성했다.

특히, 인천시의 지난해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35.3명으로 우리나라 발생률보다 낮았다. 또, 2022년 신규 결핵환자는 827명(인구 10만 명

당 28.1명)으로 2021년 953명(인구 10만 명당 32.6명) 대비 11.5%(126명)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인천시의 인구 10만 명당 신규 결핵환자는 2018년 47명, 2020년 34.4명, 2022년 28.1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규 결핵환자는 2018년 36.1명, 2020년 42.2명, 2022년 48.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결핵 발병률이 높은 노년층, 발병 및 전파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 등 고위험군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감염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노인, 재가 와상 노인을 최우선 순위로 검진할 예정이다. 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허약 노인, 건강 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자(거동 불편자) 등 결핵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등 결핵 검진이 필요한 대상이 있는 시설을 찾아가는 검진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와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0개 군·구별로 일정을 잡아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검진하고, 검진 결과 결핵환자로 진단되면 결핵치료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인, 주거 취약지구 주민,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순회 이동검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돌봄 시설 등에서 단기근로자 등의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과 산후조리원·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산모 신생아 도우미시설 등 돌봄 시설 내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인 임신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 결핵 고위험국가(총 35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국내 체류 중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함께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접촉자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10개 군·구 보건소와 11개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에서는 전담 요원이 결핵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관리하고, 상담 및 교육은 물론, 환자 사례조사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진단·신고된 환자는 다제내성 결핵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수약 불협조자 또는 치료 중단자 등 비순응 결핵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기준 등을 따르지 않으면 입원 격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과 리팜핀(Rifampicin) 등

에 내성인 결핵

시는 결핵환자 관리와 함께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핵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홍보활동과 회의체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결핵 홍보캠페인을 벌였으며, 인천시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는 연 2회 환자 관리 평가, 특히 환자 사례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결핵환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 시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결핵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노인, 노숙인 등 결핵 발병이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검진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2023년도 인천시 결핵관리사업계획(요약)



< 참고 사진 : 결핵 검진, 결핵 예방 홍보캠페인 >

참고

2023년 인천시 결핵관리사업계획[요약]

- ◇ **비전** :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인천
 ◇ **목표** : '23년 30명 이하 → '27년 20명 이하 → '30년 10명 이하
 (인구 10만명 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

□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5조제3항(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 202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 2022년 결핵환자 발생(잠정 통계)

구 분	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전체환자	1,041	37	8	62	25	180	75	171	185	112	186
[10만명당]	35.6	53.6	39.4	44.2	40.9	44.8	19.4	33.0	38.1	38.1	34.1
신환자	830	31	7	50	21	140	64	137	143	88	149
[10만명당]	28.4	44.9	34.5	35.7	34.3	34.9	16.6	26.4	29.4	29.9	27.3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 목표 달성

-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목표 90%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㉓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㉔			달성률 [(㉓×0.6)+ (㉔×0.4)] ×㉕
B중 잠복결핵감염 검진자 (A)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 (B)	D중 1명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한 호흡기 결핵환자 (C)	잠복결핵감염 검사대상자가 있는 호흡기 결핵환자 (D)	검진율 ㉓=(A/B)× (C/D)×100	검진자 (E)	검진대상자 (F)	검진율 ㉔=(E/F) ×100	
441	441	240	240	100	903	909	99.3	99.7

-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 : 목표 60%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률 ㉔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율 ㉕			달성률 [(㉔×0.6)+ (㉕×0.4)] ×㉖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시작자 (A)	당해년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B)	치료시작률 ㉔=(A/B)× 100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완료자 (C)	당해년에 잠복결핵감 염 치료완료예정인 가족접촉자 (D)	치료완료율 ㉕= (C/D) ×100	
61	85	71.7	64	65	98.4	82.4

□ 사업개요

- 기 간 : 2023.01. ~ 2023.12.
- 사업대상 : 인천시민,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결핵접촉자 등
- 사업내용

◇ 결핵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 민간·공공협력(PPM)의료기관을 통한 환자치료 및 관리 지원
- 보건소, PPM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확대)
-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확대)
- 다제내성 및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 강화
- 입원·격리치료 명령환자 비용 지원
- 결핵역학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 결핵 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사업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실시(확대)
-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신규)
-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 결핵관리기반 강화

- 결핵 인식개선 및 행동변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PPM) 강화

- 사업예산 : 2,894백만원(기 1,718, 시 638, 구 538)

□ 결핵전담요원(간호사) 배치

- 공공기관(보건소, 의료원) : 11개소 34명

계	사/의료원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마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34	3	2	2	3	2	4	3	4	4	3	4

○ PPM 참여기관 : 10개소 16명

□ 기대효과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핵관리사업 추진으로 결핵발생 예방
- 결핵치료 성공률 향상으로 결핵확산 방지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